

아이뉴스24

# 中대사, 중국판 뉴딜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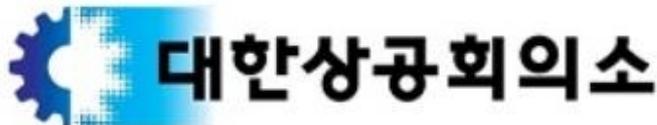
기사입력 2020-06-10 10:31

## 상의, 싱하이밍 초청 웹세미나 개최...패스트 트랙 확대 의사 밝혀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주한 중국대사가 온라인상으로 한국 기업인에게 중국 경제건설 정책과 한중 경제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청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양회 이후 한중관계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20년 중국 양회 결과와 주요 경제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중 기업인 입국 패스트 트랙' 등 한중 경제현안을 설명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올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기 위함"이라며 "일자리 안정, 소비 촉진, 시장 활성화,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아이뉴스24]

그는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인프라 건설이 포함된 '중국판 뉴딜(경제건설계획)'은 올해 안에만 8조위안(약 1천360조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48조6천억위안(약 8천262조원)의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신인프라 건설은 5G·산업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분야와 첨단기술

응용분야 및 과학·산업기술 분야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라면서 "투자방식과 투자주체, 시장개방성에 있어 이전과 달라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한중간 패스트 트랙(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대해서 "한중 정상간 합의의 실현으로 양국간 필요한 경제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청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1천여명의 한국기업인이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간 패스트 트랙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지역이 10개였으나 현재는 총 19개 지역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중 경제계의 활발한 교류를 돕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더욱 늘려나갈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싱하이밍 대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국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inews24.com](mailto:sliz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1&aid=0000542284>

---